

광주시 '국가대표급' 거대신생기업 육성

올해 'G-유니콘기업' 5개사 선정...최대 2억 사업화자금·해외 진출·투자유치 지원 등

광주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에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5개사를 'G-유니콘 육성기업'으로 선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투자유치, 판로지원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광주 내 분사 또는 지사·지점·연구소기업 등을 두고 있는 기업 중 5년 이내 5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G-유니콘 육성사업'에는 총 21개사가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특히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된 3차 발표평가에서는 외부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차량용 고정형 라이다 개발·제작 기업 '에스오에스랩'(대상), 비접촉 동물 개체 생체정보 분석 인공지능 다테크 기업 '인트플로우'(최우수상), 폐실리온 활용 질화규소 불 제조 제품화 기업 '첨단랩'(최우수상), 에너지절감 냉각 소재 기술기업 '포엘'(우수상), 글로벌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획 및 제작기업 '스튜디오버튼'(우수상) 등 5개 기업이다.

선정기업에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대기업과 개

방형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확장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구축을 목표로 투자, 기반시설(인프라), 인재를 연결되는 창업성장 사다리를 만들고 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G-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세계적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비전 선언에 이어 지난 5월에는 5000억원 창업펀드 조성,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실증 지원사업, 광주창업페스티벌 등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지지도 '1년1개월째 1위'

전남 도민들 전북 지지 속 '큰 정치' 다지기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민선 8기 1년 1개월 동안 전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평가에서 연속 1위를 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취임 이후부터 이번 조사까지 줄곧 연속 선두를 유지해온 것이다.

김 지사는 올 상반기 한국갤럽의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선 7기 이후 도민들의 높은 지지도도를 바탕으로 호남 정치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3년 7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김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5%로 가장 높았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63.4%로 2위, 이철우 경북지사가 60.7%로 3위에 올랐다. 재선인 김 지사는 민선 7기에도 같은 기관의 43회의 여론



조사 중 30회에 걸쳐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자체 공개 원칙에 따라 상위 10위까지만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지난 6월 26일-30일과 7월 27일-30일,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응답률은 2.4%이다.

한편, 김 지사는 14일 하루 여름 휴가를 보내며 '100년 후(NEXT 100 YEARS)'를 읽겠다고 예고하면서 복귀 후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독후감'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축제·피서지 물가 안정 캠페인

광주시, 31일까지 착한 업소 홍보도

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축제·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축제장과 피서지 등에서 가격 표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에는 '광주 비어페스트'가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소비자 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축제·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가격표시제 준수 등을 요청했다.

박선희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시민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안정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대 운동장서 물놀이 휴일인 12일, 광주대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18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

전남도는 오는 18일까지 2주간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를 적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폭염경보' 땀 실외체육시설 이용 못한다

광주시, 체육행사도 취소 권장...자치구·시체육회 등도 준수

광주시가 폭염경보 발령 때는 실외체육시설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체육행사도 당일 대화라도 취소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 발령기준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기준과 체육행사(대회) 기준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스포츠안전재단 권고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하게 시행되던 기준을 정비해 광주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만든 것이다.

해당 기준은 자치구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체육회, 시장·읍면체육회 등에서 관리·운영하고, 각 기관은 홈페이지 게재, 체육시설 내 안내문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를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를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 관련 체육시설 이용 조치는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 적용한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폭염주의보만 발령돼도 이용이 금지된다.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이용 자제를 권고,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폭염경보로 강화되면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실외 체육시설은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그늘막이 없는 실외체육시설은 폭염 취약계층 이용이 금지되고, 그늘막이 있더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장한다.

체육행사는 대회 개최 1일 전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장한다.

광주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8-9월 체육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기관·단체에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관광공사 초대 사장 공모에 5명 지원

광주 관광공사 초대 사장 공개 모집에 모두 5명이 지원했다.

13일 광주 관광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출신별로 학계 2명, 업계 2명, 공공기관 1명이 응모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강

기정 광주시장에게 복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면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3년 임기 사장으로 임명된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위해 광주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 관광공사로 통합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